

顧問建築士의 필요성 擡頭

申鍾浩

진풍건축사사무소 대표

인간은 본래 집에서 태어나 성장을 시작한다. 보통 방의 반 이상을 독차지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가운데 약 5세 이후부터 집 밖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그 이상의 학문을 계속하면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러한 동안 공간의 일부를 일시나마 차지하게 되고, 외부 서재(도서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여유가 주어지면 내부의 서재 또한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대다수가 소정의 병역의무를 마친 후 일반의 경우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1년 2년이 흐르는 동안 결혼을 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집에 대한 선호도 내지는 애착심이 증대된다. 이러한 동안 삭월세, 전세, 서민아파트, 중산층 이상 아파트 단독주택 등 다양한 패턴에 따라 가장으로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급료로서 저축하여 자기집을 마련하기란 너무나도 힘들고 벽찬 나머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집장만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다 겨우 집을 장만하고 나서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인 양 자만하다가 다시 더 나은 집을 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경주한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자식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도 집에 대한 걱정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은 가정이며, 모든 사고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노년에 이르러 만족못하는 인생을 살아감에 따라 집에 대한 각자 철학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다. 현시대에 살고 있는 선배, 후배 및 동료 여러분, 요즘같이 인구가 많고 더우기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는 가운데 지금 인적자원이 많은 현상을 고려해 볼 때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잘 안되고 일부 분야는 불경기를 맞는 분야도 있고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20대 후반부터 거의 30대 중반까지 노력해야 소규모의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으로 집에 대해 자기생의 전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우리사회에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사람은 건축사들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깎듯이 건축가들도 향간에 제구실을 못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기는 하나, 전공으로 택한 선배 후배 여러분, 우리 건축사는 바로 앞장을 서서 인간의 보금자리이며 가정생활의 터전인 집에 대한 부단한 연구가 사심없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노력하는 자세만이 우리 건축사가 할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각계 각층으로부터 존경받는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건축사, 다시말해 顧問建築士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고, 더욱 노력하면 기술자는 단순하다는 논리를 깨고 지금까지 고문 변호사니, 고문 세무사니 하는 말만 향간에 많이 나돌았지만 고문 건축사란 말도 자주 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점에 비추어 볼때 우리 건축사의 자세는 더욱 분발해야될 때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자세만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축사는 한낱 단순한 쟁이로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건축과 관련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건축사들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자로 보지 말고, 1+1=2라는 기술자 논리를 벗어나 1+1=∞로서 건축철학을 창출할 줄 아는 건축사의 자세가 필요하고, 인식의 시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에 사는 현대인들은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건축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 집을 여러 번 지어본 사람이면 건축사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건축사에게 설게 의뢰할 당시는 너무 모른 나머지 나중에 가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집은 한번 지어지면 부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회 각계층 선배, 후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으로 고문 건축사의 필요의식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건축인은 건축을 교과서부터 배운 건축사를 깊은 마음으로 이해하고(우선 건축법을 준수하는 양심) 건축사는 정열을 다하여 비건축인에게 보답하는 자세가 급변하는 정세속에 더욱이 필요한 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건축인이건 비건축인이건 집이 생의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가 된다고 느끼신다면 이 나라는 더욱 발전되고 역사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더욱이 연구하는 자세의 건축사가 많을수록 건축분야는 물론 이 사회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